

都彌說話의 傳承 樣相

崔 雲 植*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傳承 地域 |
| II. 文獻 資料의 傳承 樣相 | 3. 口傳 資料의 內容 比較 |
| III. 口傳 資料의 傳承 樣相 | IV. 맺음말 |
| 1. 口傳 資料 | |

I. 머리말

도미설화는 지배 계층의 횡포와 이에 대응하는 피지배 계층의 지혜와 용기,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여인의 貞節 등이 문학적으로 形象化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함께 교훈을 준다. 이 이야기는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東國通鑑』, 『東史綱目』, 『海東雜錄』, 『三綱行實圖』 등의 문헌과 星州 都氏 族譜에 실려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 지역에서 口傳 資料가 채록되었다.

지금까지 도미설화에 관한 연구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도미 설화의 전승 양상을 고찰한 연구,¹⁾ 도미설화를 고소설 「청화담」에 나오는 도미 삼화,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 등과 비교 고찰한 연구²⁾ 등이 있다. 그러나 구전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이 설화의 전승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필자가 채록한 도미설화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가 전해 오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본 다음, 이들 자료를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과 비교하면서 변이 양상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도미설화의 전승 양상을 파악하고, 이 설화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인가를 추정하는 단서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1) 정상박, 1988. 「도미부부 설화 傳承考」 『국어국문학』 (부산: 동아대 국문과) 8.
노태조, 1991. 「도미 전승의 유통 양상」 『어문연구』 (어문연구회) 21.
- 2) 장덕순, 1970.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송백헌, 1986. 「아랑의 정조 일고」 『동천 조건상 선생 고회논문집』 (청주: 개신어문연구회).
최내옥, 1981. 「관탈민녀형 설화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서울: 동화문화사).
김낙효, 1992. 「도미설화의 소설화 고찰」 『봉죽헌 박봉배 선생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동 간행위원회).

II. 文獻資料의 傳承 樣相

도미설화가 전해 오는 문헌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三國史記』이다. 먼저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적어 보겠다.

도미는 백제 사람으로 비록 編戶小民이었으나 자못 의리를 알았다. 그의 아내는 예쁘고 아름답다우며 節行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 때 개루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다.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을 위주로 한다고 하나 만약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 꺾이면 능히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도미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가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오나, 신의 아내만은 비록 죽더라도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이를 시험하려고 도미에게 사건을 만들어 붙잡아 두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왕으로 꾸며 왕의 의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보냈다. 그 신하는 밤에 도미의 집에 이르러서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왔다고 알리고, 도미의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좋아한 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도미와 내기를 하였는데, 내가 이겼으므로 너를 얻게 되었다. 내일 너를 宮人으로 하게 하였으니, 이후부터 네 몸은 내 소유이다.”

왕의 신하가 곧 그녀의 몸을 취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국왕은 망언이 없을 것이니,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제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곧 들어가 모시겠습니다.”

방에서 물러 나온 도미의 아내는 곧 한 계집종을 단장시켜 모시게 하였다.

왕은 뒤에 그녀가 속인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애매한 죄로 다스려 그의 두 눈동자를 빼고, 그를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실은 다음, 물위에 띄워 놓았다. 그리고는 도미의 아내를 불러들여 강제로 그의 몸을 취하려 하니,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되어 능히 스스로 살지 못하게 되었사오나, 항차 대왕을 모시라는 명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월경으로 온 몸이 더럽게 되었사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날을 기다려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오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망을 나온 도미의 아내는 마침내 강가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 능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그 때 갑자기 조각배 한 척이 나타나서 물결을 따라 왔다. 그녀는 이 배를 잡아타고 泉城島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는데, 아직 그가 죽지 않았으므로 함께 풀뿌리를 캐서 먹으며 연명하였다. 마침내는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蒜山 밑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옷과 먹을 것을 주므로 살 수 있게 되어,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³⁾

『삼국사기』 이후에 나온 여러 문헌에도 도미설화가 기록되어 전한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수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3) 김부식 저, 『三國史記』 권 제48 列傳 제8, 김중권 역, 1969. 『삼국사기』 (서울 : 선진문화사), 753쪽의 번역문을 원문과 대조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듬은 것임.

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조선 성종 16년에 서거정·정효환 등이 편찬한 『東國通鑑』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축약하고, 개루왕을 주체로 기술하였다. 그래서 왕이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과정, 왕이 도미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고자 한 행위의 동기, 도미의 아내가 강가에 와서 통곡하자 홀연히 배가 나타났다는 대목,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가서 살다가 죽은 일 등이 생략되었다.

중종 때 유희령이 편찬한 『東國史略』은 『東國通鑑』을 대본으로 하여 기록하면서 부분적으로 더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영조 때 안정복이 편찬한 『東史綱目』은 『동국통감』을 底本으로 하면서도 『삼국사기』를 참조하여 이를 보완하고, 『삼국사기』의 내용을 註로 붙여 놓았다. 배를 타고 떠난 도미 부부가 만난 ‘泉城島’ 밑에 ‘今未詳’이라고 하여 이 시기에도 천성도가 어디인지 모름을 밝혀 놓았다.

『大東野乘』에 실려 있는 權輿의 「海東雜錄」에는 『동국통감』과 『동국사략』의 내용보다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19세기에 无憫翁이 편찬한 『歷史類編』은 『동국통감』을 거의 그대로 轉寫하였으나, 왕이 도미와 여인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과 왕이 가짜 왕을 보내어 시험하였다는 말이 빠져 왕이 직접 도미의 집으로 가서 도미 부인을 범하려 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도미의 아내가 강가에 이르러 통곡하는 대목, 도미 부부의 불행한 삶과 죽음 등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세종 14년에 집현전 학사들이 편찬한 『三綱行實圖』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이 책은 유교 윤리를 강조한 책이므로, 도미 부인의 烈行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건의 서술은 살리고, 관계가 적은 부분은 축약하였다.

조선 정조~고종 때 都命應 등이 편찬한 『星州 都氏 族譜』⁵⁾에도 도미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 부분에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 『삼강행실도』를 저본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동국통감』의 내용에 가깝다. 족보에는 이야기의 첫 부분에 ‘後孫都彌 漢桓帝延熹時佐百濟蓋婁王’이라고 하여 도미를 중국 漢나라 延熹⁶⁾ 때, 백제 개루왕을 도운 인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도미를 궁궐에 출입하면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그린 것으로, 『삼국사기』의 ‘編戶小民’에 비해 신분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점잖지 못한 표현은 점잖은 문구로 수정하였다. 끝부분의 도미 부부가 만난 ‘泉城島’ 밑에 “지금의 웅천임. 그 곳에 도미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오기도 함(今熊川 或傳其地有都彌塚云)”

4) 이에 관하여는 정상박이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5)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

6) 延熹 1년은 서기 158년, 개루왕 31년임.

이라고 주석을 달고, 고구려로 가서 살았다는 대목은 삭제하였다. 이것은 경남 용천에 도미의 무덤이 있다는 주석의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에 기록된 도미설화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수용하여 기록하였으므로, 기본적인 줄거리는 같다. 그러나 각 문헌의 편찬자는 그 문헌의 편찬 목적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축약 또는 부연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口傳 資料의 傳承 樣相

필자는 최근에 충남 보령과 경남 진해 지역에서 구전되는 도미설화를 채록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가 전해 오는 두 지역의 특성과 자료와의 관계를 살핀 다음, 채록 자료의 내용 비교를 통하여 이 설화의 전승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口傳 資料

필자가 채록한 구전 자료는 충남 보령 지역에서 채록한 자료 5편과 경남 진해 지역에서 채록한 자료 2편 등 모두 7편이다. 그 내용을 채록한 원음 그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A.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데, 도미라는 목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목수가 여기서 살았는데, 부인이 상당히 미인이었대요. 그 부인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수지요. 그 분이 부인을 탐내 가꾸, 그 부인을 탐내 가꾸 그 목수를 멀리, 뭐야, 일을 보냈어요. 일을 보내면서 딴 사람을 시켜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멀리 보냈다고 그래요.

보냈는데, 그 부인이, 그 참 원님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내가 생리 중이니까, 며칠 후에 들러라.”

그래 가지구, 그 후로 3일 있다가 바다로 그냥 나가 가지구, 자기가 자살했다고 그런 전설도 있구요.

배 타구 그냥 나가서 한없이 그냥 서해 바다로 나가 가지구서 워트게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시켜 가지구서, 눈을 멀게 만들어 가지구서, 멀리 떠나가서 살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⁷⁾

7) 채록 일시 : 1996. 5. 22. 오후 4 : 30분경.

채록 장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 김현택씨 댁 마당가

구연자 : 김현택(남, 61세, 중졸, 철도청 광천역 근무)

사는 곳 및 나서 자란 곳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김정현 선생의 안내로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에 가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 도미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길 건너편 집에 사는 김현택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니, 김씨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김씨 집을 찾아가니 마당가 밭에서 부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김씨와 인사를 나누고, 마당가에 서서 함께 간 김정현·한구·강들이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

B. 도미 부인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도미항 근처에 살았다 해서 ‘도미 부인’인 모양이유. 그러구 인저 춘향이 비젓하게(비슷하게) 정절을 지킨 건디, 그러디, 그 사당을 저 건너에다가 지어 놓은 심(셈)이여. 그래서 인저, 여기 학자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들은 풍월로다가 뭐시 하는 건디…….

옛날에 미인도(美人島)라고, 여기 건너가면(건너가면) 섬 하나 있시유. 쪼끄만한 거. 그 고기서 살었드래유. 여자가 출가해 가꾸. 목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수 하구 결혼해 가꾸서 살었드래요. 그러디, 그 목수가, 청소(보령시 청소면), 요기 나가면은 ‘전마들’(전에 戰馬를 길렀다는 들)이라고 있시유. 옛날에 말 먹이구 이러던 디(테). 거기가 말 먹이구 했드라느면 그류. 나라에서.

거기서 무슨 일인가 허는디, 그말 허자면 그 일을 시키는 대장이 와서 보니까, 도미 부인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미인이거든유. 그러디, 그 늑(늑)이 야심이 생겼던가, 그 신랑짜리를 워트게 좀 읍새구서(없애고서) 지가(제가) 그 부인을 차지할라고, 그런 야심을 썼더면 그리유.

그래서, 그 목수를 그 사람네가, 그 전에는 사람을 어지간허면 죽였다 살렸다 허지 않았시유. 마음대로. 그러니까, 양쪽 눈을 다 뺏대유. 무슨 핑계 잡아 가지구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다든지, 억지루 핑계를 잡어서, 그 목수의 눈을 양쪽 다 뺏대유. 양쪽 다 눈을 빼구서, 눈을 뺏으니 사람이 죽을 일 아니유? 그 배에다 실어서 그냥 물 쓰는디(떨물이어서 물이 나가는데), 떠나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신랑을 그렇게 허니, 기가 맥힐 일 아니유? 그러니까 이제 워트게 거기서 풀려나와 가지구서, 그 배 떠나가는 것을 봤대유. 워니(어느) 갯고랑으로 떠나간다는 걸. 그레 보니까, 무한 가니까, 낭중엔(나중엔) 안 될 것 아니여. 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 위, 상사봉(相思峰)이라고, 절이 있시유. 선림사라는 절. 그 위의 상사봉. 그 상사봉에 올라가서 봤다느면 그리유. 그래서 그 상사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느면 그리유. 그 상사봉 꼭대기가, 지금 전망대가 하나 있지요. 저- 산 꼭대기. 여기서 봐유. 그 전망대 지은 거기가 올라앉아서 자기 신랑 떠나가는 것을 봤대유. 그러니까, 저기 섬, 원산도, 효자도, 그 밖으로다가 배가 등실등실 떠나가더래유.

그래서 내려와서는 거기를 워트게 찾아가려니 찾아가갈 수가 있시유? 그 적만 헤두 배두 뭐, 교통 글루구(그르고, 좋지 않고) 그러니까. 워트게 워트게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는 전라도 워디인가 가서 수소문해 보니까, 거기 와서 워면 봉사 하나, 눈 빠진 봉사 하나가 지팽이 짚고 다니면서 구걸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자기 신랑이여. 그레 가지구,

“이게 웬 일이나?”

허구, 서루 붙잡구 대성통곡허고, 그렇게 해서 정절을 지켰대유. 그래서 그 신랑을 여자라 생전 모시구 그렇거구 살았대유.

그래서, 그런 여자가 워디 있겠시유. 춘향이 비젓한 거유. 춘향이 마냥(처럼) 정절을 지킨 거지유.⁸⁾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12~3세 때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함.

8) 채록 일시 : 1996. 5. 22. 오후 5시 10분경

채록 장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이용돈씨택 마루

구연자 : 이용돈(남, 78세, 초졸, 농업)

사는 곳 및 나서 자란 곳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김현택씨 택 마당가에서 김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 이야기를 알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이씨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씨 택을 찾아가서 찾아온 이유를 말하니, 이씨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 보라고 하다가 마루로 나와 이야

C. 옛날 백제 시대에 전마들(戰馬坪, 현 청소면 진죽리)에서는 군용마(軍用馬)를 길렀기 때문에 왕들이 자주 순시하러 왔다는 거요.

백제 왕이, 무슨 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왕이 목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도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구서, 도미를 불러서 마굿간 짓는 것을 청부를 주었다. 그러구서 왕의 위력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늦추게 만들어서, 기한이 늦으니까,

“너 왕명을 거역했다.”

그래가지구서 일부러 눈을 빼서 맹인을 만들어 가지구서, 빈 배에다 태워서 떠내려보냈다.

빈 배에 태워서 내보내고서, 도미 아내를 불러서,

“네 남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너 오늘부터 내게 시침(侍寢)을 해라.”

하니까, 도미의 아내가 얼굴에 화색을 띄우고, 아주 좋아하면서,

“내가 일개 목수의 아내인데, 왕이 나에게 시침을 하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인데, 왜 앓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진 뒤에 목욕재계 하고 와서 모시겠소.”

이렇게 혼연하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넘어갔단 말여. 그래서 오히려 상금을 두둑히 주면서,

“너 그림, 며칠 후에 들어오너라.”

해서 보냈거든.

그런디, 부인은 그날 저녁에 상사봉으로 올라가서, 지금 팔각정이 있는 디여. 거기 올라가 보면, 도미항에서부터 주옥 물길에 다 보이지. 거기서 물길을 다 보구서, 자기 남편이 빈 배에 떠내려갔으면 위도로 갔겠는가, 물길을 보고 통곡을 하였어. 그래서 거기가 ‘상사봉(相思峰)’이라는 이름이 났다는 거여.

그렇게 하구서, 그날 저녁에 빈 배를 훔쳐 타구서 달아났어. 그런디 다행이 원산도에 내렸단 말여.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거기서 밥 얻어 먹구 있더라.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고구려로 달아났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9)

기를 해 주었다. 마루에 앉아, 함께 간 김정현·한구·강들이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교성리 앞에 미인도가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도미 이야기는 50세쯤 되었을 때 친구한테 들었다고 함. 그 친구는 청소면 진죽리에 사는 허준(지금 83세)씨한테 들었다고 함.

9) 채록 일시 : 1996. 8. 3. 오후 6시 30분경

구연자 : 허준(남, 83세, 초졸, 신춘문에 당선, 전 조선일보 외근 기자)

사는 곳 : 충남 보령시 대관동 흥화아파트 2동 101호

나서 자란 곳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마차미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에 사는 김창화씨를 댁에서 김씨로부터 도미 이야기를 들던 중 김씨가 허준씨를 찾아가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허준씨의 주소를 물으니, 김씨는 모른다고 하면서 대천 노인회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천 노인회를 찾아가니, 사무실이 잠겨 있어서 파출소로 가서 전화 번호부를 보고, 연락한 뒤에 허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만났다. 허씨는 도미의 고향이 보령이라고 추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 이야기를 하였다. 이 이야기는 구연자 허씨의 방에서 배성진·한구 선생, 최진평·이은아 학생, 그리고 교사인 허씨의 아들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채록하였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젊었을 때에 친구인 최중철씨의 부친(오천 수사포의 이방을 하던 분임)한테 들었고, 미인도(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빙도)에 사는 김덕동(남, 80세)씨한테도 들었다고 함.

D.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잊어 번져서, 정신이 읊서서……. 도미 아내가 참 미인이 었다야. 그런데 워편 사람이 탐색이 나서 도미를, 그러니께, 그 뭐를, 대강집에서 그랬나, 나라에서 그랬나. 도미를 불러서는, 목수니께, 집을 짓게 맹글어 놓더라. 그러구서는 그 순간에 도미 마누라를 거시기 할라구, 거시기 했던 모양이지유. 그러니께 그 마누라가 들두 (듣지도) 앓구 그랬어.

그 마누라가 들두 앓구 그랬는데, 도미, 그 사내가 집을 짓다가 왔다던가, 다 짓구서 왔는데, 그 사람을 지길(죽일)려고 허더라. 그 남편을. 그럴라구 해서 배 타구서, 그 사람을 원산도에 ‘도투마리’라는 데가 있지유. 거기루다가 워치게 배를 타구서 갔던가, 거기서 있었는데, 도미 마누라가 말을 안 듣구, 지길려구 했사쿠 그러니께, 워치게 해서 도망을 해서 이 되미항(도미항)까지 왔었다나. 그래서 도미 마누라니께 그 이름을 따서 ‘도미항’이라구 했다구 그렇게 얘기를 들었시유.

그러다가 원산도로 쫓각배를 타구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구서, 그 마누라도 그 곳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시유.¹⁰⁾

E. 도미라는 분이 목수라느면 그류. 그런데 워치게 됐느냐 하면, 요 근너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인도’거든요. 미인이 난다구 미인도. 그런데 도미가, 백제 왕이, 요기 청소(보령시 청소면) 가는 다가 ‘전마들’입니다. 거기가 그 전에는 역마장이었대유. 그 들이. 그러니까 왕이 순시를 했더라구요.

왕이 순시를 왔는데, 그 왕이 그 도미 부인을 봤던 모양이유. 그런데, 절색 미인이다 이게유. 그러니께, 인제, 그 때는 백제 왕이 삼천 궁녀를 거느리자 앓았습니까? 그러니께, 자기 소유를 만들라구 남편을 불러들였다더면 그려. 남편을 불러서, 도미라는 사람. 그 여자는 친정이 미인도이지유. 친정이. 그래서 미인도유. 미인이 났다고 해서. 그레 가꾸서는 목수니까, 불러다가서는 단시일 내로 집을, 한 10칸 정도 집을 4~5일 내로 지어라.

“만약이 그 기간 내에 못 지으면, 왕의 명령으로 지킨다(죽인다).”

그 사람 부인을 갖기 위해서 이냥 뭐를 했다드면 그려.

그레 가꾸, 그 사람이 짓겼습니까? 단시일내로. 그레. 그레 가꾸 결국은 집을 못 짓구 기한이 넘으니께, 요기 도미항 산에 와서 숨었었다대유. 숨었는데, 결국에는 왕이 신하를 시켜서 찾아다가 지기지는(죽이지는) 앓구 눈을 다 뺏어. 눈을 빼서 보냈답니다. 그러구서는 여기서(도미항에서) 배에다 태워서 그냥 떠나 보냈어요. 떠나 보냈는데, 그 배가 떠나 가지구서는, 지금 ‘원산도’라구 있지유. 원산도 ‘도투머리’. 아마 그 근방으로 밀렸던 모양이유.

인제 그건 그렇게 되고, 또 인제 부인은 잡아다가 수청을 들어라 그러니께, 부인이 왕명

구연 경력 : 허씨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구연하였고,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내고장 보령』(보령군에서 1983년에 발행)에 실은 적도 있다고 함.

10) 채록 일시 : 1996. 8. 3. 오후 3시경

구연자 : 김종찬(남, 80세, 농업, 한문 수학)

나서 자란 곳 및 사는 곳 :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병도(미인도)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도미설화를 채록하기 위해 1996년 5월 22일에 왔었는데, 그 때는 시간이 없어 미인도에 가서 조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날 다시 시간을 내어 도미항에서 나룻배를 타고 미인도로 가서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아래에 사는 분에게 도미 이야기를 물으니, 잘 모른다고 하면서, 김종찬씨를 찾아가 보라고 하여 택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이 이야기는 구연자 김씨의 집 마루에서 함께 간 배성진·한구 선생, 최진평·이은아 학생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는가는 기억하지 못함.

이니께 워트게 혈기여. 그러니께 왕 보구서는,

“내가 몸이 지금 수청들 수가 없으니께, 하여간 한 5일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가 깨
끗한 몸으로 수청을 들것시다.”

이러구 와서는, 자기 남편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냈으니께, 요기 ‘상사봉’이라구 있시유. 거
기 가서 자기 남편 떠나가는 진로를 봤던 모양유. 그러니께, 원산도까지 떠나갈 정도가 됐
단 말이유. 그러니께, 이 양반이 밤에 몰래 배를 타구서 떠나간겨유.

떠나가서 원산도에 닿아 보니께, 앞 못보는 소경이 돼 가지구서 거러지 생활을 하더래유.
자기 남편이. 그런데 백제, 국내에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께 거기서 내우(내외)
간이, 앞 못보는 남편허구 배를 타구서, 아마 시절이 여름에, 아마 남풍 바람이 불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구서 그 배를 타구 떠났어요. 그런데, 그 배가 남풍에 밀려서 서해
바다로 떠 가지구서, 지금 현재의 강화도, 그 때는 강화가 고구려 땅인데, 딴 나라니께, 그
루 떠나가서는 평생을 유지하고 살았대유. 그 역사가 거기서 기록이 됐대유.¹¹⁾

- F.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미라는 사람이, 인자 뭐 재력(권력)은 없어
도 재산이 있었던가 봐요. 힘은 없어도 재산은 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착한 마
누라를 얻었대요. 근데 그 마누라가 그리 지혜롭고 그래 예뻐답니다. 그리 예뻐는데, 그 소
문이, 소문이 인자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는기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금님이 원하면은
어떤 여자든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무슨 군단이라는기 있었대요. 그런게 있었는데, 한마
디로 조직망을 뺏두고 예쁜 여자들을 다 끌고 임금님한테 선사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대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도적패들처럼 막 무작정 남의 아낙이고 처녀고
무조건 끌고 갈 수 있었대요.

인자 그기 무서워서 도미는 너무 예쁜 마누라를 얻었기 때문에, 집엿다 구조를 히안하게
만들어 뺏대요. 한마디로 밖에서 “이런 패가 나타났다!” 소리만 들으면은 감쪽같이 집을 변
경해서 마누라를 숨길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었대요. 그래 갖고 몇 년을 그렇게, 그 소
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했는데도, 몬(못) 잡고 몬 잡고 했었대요. 그리 집을 구조
를 그렇게 만들어 뺏으니께.

그런데 인자 임금님이 꾀를 내기를, 자기가 가서 직접 “마누라를 인제 내 놓아라.” 하며
는 어떻게 안 하겠나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나? 아무튼 누구를 보냈대요. 자기, 임금
님처럼 해 가지구. 누구를 보냈는데, 한 마디로 수청을 드는 것처럼 마누라를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남편은 궁궐에 잡아다 놓고. 이 여자가 너무 지혜로와 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 인자 둘이 인자 담판을 했는기라. 임금하고 도미하고. 그랬는데. 그
런데 “그럴 여자가 어딴나?” 하고 둘이, 서로지간에 내기처럼 했는기라. 도미의 심성과 이
런 거를 전부 다 그걸, 한마디로 임금이 그걸 한거지. 노리고.

했는데, 그 마누라가 너무 지혜로와 가지고, 자긴 척하면서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여종을
몸단장을 탁 시켜서 들여보냈는 기라. 들여보냈는데 임금이, 가짜 임금이 잠자리를 같이하

11) 채록 일시 : 1996. 8. 3. 오후 4시

구연자 : 김창화(남, 67세, 농업, 초졸)

나서 자란 곳 및 사는 곳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도미항에서 배를 타고 미인도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 도미설화를 채
록한 뒤에, 다시 도미항으로 돌아와 길 건너편에 있는 김씨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넓은 대청 마
루에 앉아 함께 간 배성진·한구 선생, 최진평·이은아 학생과 함께 음료수를 대접받으며 이야기
를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들려 준 사람 : 6~7년 전에 허준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함.

고 와 갖고, 한마디로 “내걸 만들어 왔다.” 임금한테 말을 한 거지. 하나까, 절대 몸은 건질지 말라고 또 임금이 그랬다네요. 그래서 인제 팬티만, 한 마디로 벗겨 오라. 이렇게 됐대요. 그래 갖고 팬티를 가지고 탁 갔는데, 인제 팬티까지 가져왔다고 임금님이 의기양양해 갖고 하나까, 도미가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하는데, 팬티를, 그리 몬 믿겠으면은 보여주겠다면서 속옷을 탁 보여 주는데, 임금님은 의기양양하게 탁 보여 주는데, 도미가 탁 보니까, 자기 마누라 속옷이 아닌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니까, “니 마누라 속곳이 아닌지 긴지 어찌 아냐?” 그러니까, “그 몸종은 내 아내하고 너무 똑같이 갖고 남들이 다 동생인 줄 아는데, 그 속곳은 내가 장에 가서 직접 피를 떠다가 몸종들 속옷 만들어 달라고 썼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됐는기라.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기라. 성질이 너무 나 가지고, 그냥 두 눈을 멀게 했어요. 두 눈을 멀게 했는데, 어떻게 돼 갖고 그 마누라가 자기 신랑이 아무리 오기를 기다려도 안 오고 하나까, 무슨 일이 있었을 기라고 그걸 해 갖고 인자, 어떻게 해서 아무튼 궁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한마디로 신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생각이 잘 안 나네.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한 마디로 자기 신랑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한 마디로 탐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기라요. 들어가 가지고 자기 신랑이 눈이 멀어서 배에 버렸다는 그기까지를 알게 됐는기라. 알게 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서, 배가 바람 부는 방향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걸 따라서 찾아 헤메는게, 어디 있어도 살아 있으면은 내가 거둬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면서 헤메서 헤메서 이 동네로 왔다네요. 이 동네로 마누라도 같이 왔다네요. 그래서 부둥켜안고……. 눈이 뭐 그 정도 됐는데 살았겠어요? 죽어서 울며불며 무덤을 만들었던 소리죠.¹²⁾

- G. 그 인제, 내사 말 들으께, 도미 할매가 아주 세계 미인이라. 그래 영감하고 이래 기냥 사는데, 옛날 정승이 도미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니께, 친해 가지고 그 할매를 보고 욕심을 하는기라. 그나 이제 정승이 그라니께, 또 할아버지가 영 안 된다 말은 몬하고,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마, 딱 그만 마, 문을 잠구고 밥도 안먹고, 마 절식을 하고. 죽을라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께, 도미 할매가 자꾸 문 앞에, 문을 기대 갖고 자꾸 묻는 기라. 그라니께 “사실 그래서 내가 그란다.” 이렇게,
 “마 개얌쇼. 밥을 자시라.” 카거등.
 그래가 할매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밥을 자시고 살아가 있었어 그래. 살아가 있는데, 인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근데, 그 배 선장 입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정승이 말이지 도미 할아버지한테 속아서 말이지 몸종이 가 가지고 말이지, 그기 정승한테 잤다. 몸종을 그 몸을 잘, 그 옷을 잘 입히고 단장을 해 가지고 가서 말이지, 정승이 도미 할아버지한테 속았다.”

12) 채록일시 : 1996. 10. 25. 오후 3시 30분경

구연자 : 김복덕(여, 34세, 중졸, 주부·어업)

사는 곳 : 경남 진해시 청안동 36번지

나서 자란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남동 36-7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산상고 김몽상 선생의 안내로 청안동을 찾아가 도미 무덤을 돌아 보고, 무덤 바로 아래에 있는 김씨집 마당으로 와서 마루에 앉아 있는 김씨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김씨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사양하다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몇 번 부탁하자, 승낙하고 마당에 있는 평상으로 내려와 구연하였다. 함께 간 이준현·전연숙 선생과 함께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김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한 뒤에 이곳으로 와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시누이인 강순미(여, 진해중합고등학교 졸업, 간호사)씨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말이 나 가지요, 어느 년은 임금이 마, 정승 할아버지 잡아다가 양눈을 빼다가 바다에 다, 마 바다에 띄와 뱃어요. 띄와 빠니께, 그래 그 할매가

“옛날에 내 얼굴 때문에 말이지 영감님도 돌아갔다.”

이러카고 같이 떠나갔어요. 그래 갖고 저 천성이라 하는 그를 가면, 가덕 천성. 이 산 너메 지예. 그를 가 가지고 그 할매와 할아버지하고 만내가 얘기를 했다 케요. 살아 가지고.

그라고 어쨌거나 명산을 찾았더니, 여 와서 그 할아버지가 내외간에 합장묘가 있습니다. 여 와서 무춧스요. 천성이라는 데가 청간면 천성포라 카는데, 그가 가덕 섬입니다.¹³⁾

충남 보령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 도미설화를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¹⁴⁾ 이것은 도미설화가 이 지역에서 오래 전 부터 구전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도미설화의 구전 자료가 채록되어 학계에 보고된 것이 2편이 있는데, 한 편은 충남 보령에서 채록한 것이고,¹⁵⁾ 다른 한 편은 경남 진해에서 채록한 것이다.¹⁶⁾ 그런데 보령 자료의 구연자 허쥔씨는 위에 적은 C의 구연자와 같은 사람이고, 진해 자료의 구연자 박석수씨는 위에 적은 G의 구연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연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따로 다루지 않는다.

2. 傳承 地域

위에 적은 자료 중 A~E는 충남 보령시에서 채록한 것이고, F·G는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서 채록한 것이다. 이들 자료가 전해 오는 두 지역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자료의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채록일시 : 1996. 10. 25. 오후 3시 50분경

구연자 : 朴錫守(남, 82세, 무학, 어업)

사는 곳 및 나서 자란 곳 : 경남 진해시 청안동 214번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산상고 김몽상 선생의 안내로 청안동을 찾아가 도미 무덤을 돌아 보고, 무덤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 김복덕씨를 만나 도미 이야기를 들은 뒤에 박씨집을 물어 찾아가서 만났다. 박씨집 마루에 앉아 함께 간 이준현·전연숙 선생과 함께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박씨는 아버지 때부터 몇 년 전까지 도미 무덤의 관리를 해 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한다.

구연 경력 : 박씨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14) 필자가 1996. 8. 3. 오후 3시 30분경에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4리 빙도에 사는 김덕준(남, 67세, 농업, 국문 해독)씨를 그의 집 앞에서 만나 도미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아느냐고 묻자, 그는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 부인이 이빠서 누가 뺏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시유.” 하면서 구연하기를 사양하였다.

15) 경기대학교 국문과, 1991. 『경기어문학』 9, 534.

16) 정상박, 1988. 「앞 글」 (주 1) 22~23.

가. 충남 보령시

도미설화와 관련이 깊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청소면 진죽리, 천북면 낙동리 일원이다. 이들 3개면은 서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다. 천안—장항 간 21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광천을 지나 7킬로미터쯤 가면 보령시 청소면 소재지가 나온다. 거기서 오천쪽으로 가는 군도를 따라 3킬로미터쯤 가면 강처럼 좁고 긴 오천만 해안에 위치한 교성리 도미항이 나온다. 도미항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천북면 낙동리 氷島가 있다. 도미설화가 이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고, 서해에는 섬이 많다. 그러므로 백제인인 도미 부부가 왕의 핍박을 받다가 배를 타고 서해의 어느 섬에 닿았다가 고구려로 갔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은 이 지역의 역사, 지형과 합치된다.

둘째, 이 지역에는 도미 설화와 관계되는 지명이 여럿 있다. 이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오천면 교성리에 작은 항구가 있는데, 이곳을 ‘도미항’, ‘뒀망’, ‘도미망’이라고 한다. 옛날에 도미라고 하는 목수가 예쁘고 착한 아내와 산 곳이라고 하여 ‘도미항’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도미항 건너편에 있는 氷島를 전에는 ‘美人島’라고 하였는데, 미인이었던 도미 부인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保寧邑誌』의 忠清水營 지도에도 水營 북문 밖에 美人島, 동문 밖에 想思峰이 표시되어 있다. 미인도에는 해마다 미인이 태어나는데 미인도 맞은편에 있는 ‘다고섬’에서 달라고 하여 첫돌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도 하고, 15세에 이르면 마주 보이는 상사봉 때문에 상사병이 나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 오기도 한다.¹⁸⁾

오천면 교성리와 소성리 사이에는 선림사가 소재한 해발 220미터의 산봉우리가 있다. 백제 시대에 도미 부인이 이곳에 올라 鰲川灣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려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였다 하여 이 봉우리를 ‘想思峰’이라고 하였다 한다. 상사봉에 오르면, 동쪽으로 오서산·전마들·광천이 보이고, 동서 쪽으로 도미항·미인도·오천항·안면도·원산도 등이 보인다.

청소면 진죽리 일원에 있는 넓은 들을 ‘전마들[戰馬坪]’이라고 하는데, 백제 시대에 軍用馬를 기르던 곳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전마들에서 군용마를 길렀기 때문에 백제의 역대 왕이 이곳에 자주 巡幸하여 목장을 돌보았다고 한다.

전마들 안 송암 저수지와 청소초등학교 사이에 주변보다 1~2미터 높고, 면적이 100여

17) 필자의 2회에 걸친 현지 조사 결과와 보령군, 1983. 『내고장 보령』 375~378쪽 및 보령군, 1993. 『보령의 도미설화』 3~8 참조.

18) 1996년 8월 3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빙도(미인도)에 사는 김덕준(남, 67세, 농업)씨와 임인순(남, 56세, 농업·어업)씨의 말에 의한 것임.

평이 되는 ‘말무덤’이 두 곳 있었는데, 이곳은 군용마를 기를 때 죽은 말을 묻은 무덤이라고 한다.

전마들의 중심지인 청소면 진죽리 면소재지를 ‘파리재’라고 한다. 전마들에서 군용마를 기를 때 이곳에 총본부를 두었는데, 그 곳에 파루를 높이 쌓고 시간을 알리고 목장을 관리하였으므로 ‘파루재’라고 부르다가 음이 변하여 ‘파리재’가 되었다고 한다.

청소면 진죽리 파리재 동쪽에 ‘마차미’란 마을이 있다. 전마들에서 군용마를 기를 때 북풍을 막아 주는 가마봉 아래인 이곳에 솔을 곁고 말죽을 끓여 내던 곳이라 하여 ‘마차미’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 이곳은 오천의 충청 수영이나 보령, 남포현으로 통하는 대로가 형성되어 사람이나 말이 쉬어 가는 곳으로, 사람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말에게는 여물을 먹이는 곳이었다고 한다.

청소면 진죽리 파리재에서 서북쪽으로 1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대썰말’이라는 마을이 있다. 전마들에서 말을 먹일 때 이 마을에서 대[竹]를 길러서 사용하였으므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오천만 앞에는 도미 부부가 만났다는 ‘元山島’가 있다. 이 섬의 이름은 전에 도미 부인이 남편을 찾아 빈 배에 몸을 싣고 떠나갈 때 오서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없이 원망하였다 하여 ‘원망할 怨’자 ‘怨山島’라고 하였는데, 뒤에 ‘으뜸 元’자 ‘元山島’로 바뀌었다고 한다.¹⁹⁾

셋째,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마차미가 고향인 허준씨는 젊었을 때 조선일보 외근 기사를 하면서, 역사학자로 고향의 대선배인 황의돈씨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자주 만났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삼국사기』에 적힌 도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일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도미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백제 초기인 개루왕 때라고 한 점을 중시하여 한강 유역일 것이라 추정하고, 배를 타고 광나루 부근에서 강화도까지 몇 차례 답사하면서 도미 이야기의 배경이 될 만한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에 고향인 보령시 청소에 와서 친구인 최종철(남, 85세)씨의 부친을 만나 위에 적은 C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미 이야기가 한강 유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해안을 배경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먼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 보고, 이 지역의 지명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도미항에서 배를 빌려 띄우고,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배를 못 찾거나 파손되면 변상하기로 하고 빈 배를 띄웠는데, 그 배는 조금도 파손됨이 없이 원산도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허준씨가 이 지역에 전해 오는 전설이 사실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이다.

위에 적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을 도미설화의 고장이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 보령군청에서는 상사봉 정상에 도미 부인의 정절을 기리는 貞節

19) 허준(남, 83세, 초출, 조선일보 외근 기자 역임, 사는 곳 : 충남 보령시 대관동 흥화아파트 2동 101)씨의 말에 의한 것임.

關 5.05평을 건립하고, 상사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100미터쯤 아래에 도미 부인 사당을 지었다. 정절각 앞에는 ‘都彌夫人 說話碑’가 서 있는데, 1993년 5월 7일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비의 전면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백제 시대에 전마들[戰馬坪, 현 청소면 진죽리]에서 군용마(軍用馬)를 길렀다. 개루왕이 이곳에 자주 순행(巡行)하였는데, 어느 날 이곳에 왔다가 목수 도미의 아내가 천하일색(天下一色)이란 말을 들었다.

호색가(好色家)인 왕은 욕심이 나서 도미의 아내를 뺏으려는 계책을 세웠다. 도미를 불러서 마구간을 짓게 하고 기한(期限)을 짧게 정하여 왕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미는 왕명을 어겼다는 죄를 받았고, 왕은 도미의 두 눈을 빼고 포구에서 조각배에 태워 흘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불러 수청(守廳)을 들라 하니, 그 아내가 태연히 웃으면서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 어찌 한 목수를 생각하여 왕명을 거역하겠나이까? 그러나 소첩이 지금 생리중이므로 3~4일 기한을 주면 몸을 깨끗이 하고 대왕을 모시겠나이다.”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상을 후히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자 도미 아내는 즉시 뒷산에 올라가 물길을 자세히 살피고 슬피 통곡한 후에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빈 배에 올라 몸을 싣고 썰물에 한없이 흘러 내려갔다.

얼마 후 어느 섬에 도착하였다. 도미 아내가 배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가 보니 장님 거지 하나가 밥을 얻어먹는데, 자세히 보니 그의 남편 도미였다. 이에 반가이 맞아 배를 타고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이 사실로 인하여 도미가 살던 포구를 도미항(현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이라고 하고, 도미의 아내가 출생하여 성장한 도미항 맞은 편에 있는 섬을 미인도(현 천북면 낙동리 빙도)라고 하며, 도미 부인이 올라가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던 산봉우리를 상사봉(相思峰, 현 오천면 교성리·소성리 경계)이라고 한다.²⁰⁾

이 비의 뒷면에는 “도미 설화가 보령군 내를 소재로 하고 있어 이를 학계의 고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물임이 확인됨으로, 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설화 내용을 형상화하여 후대에 정절 정신의 사표로 삼아 산 교육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세운 것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도미 설화의 내용은 학계의 고증을 거쳐 적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고증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나. 경남 진해

부산—진해 간 국도를 따라 진해 쪽으로 가다가 釜山市界를 지나면, 진해시 용원동이 나온다. 거기에는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후가 된 許黃玉이 돌배를 타고 올 때 수로왕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다렸다는 望山島, 허왕후가 타고 온 돌배가 뒤집혀 바위가 되었다는 維舟岩

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와 소성리 경계에 있는 상사봉 정상에 세운 도미부인 貞節關 앞에 있는 도미 부인 설화비에 적혀 있는 내용임.

과 維舟婢閣이 있다. 거기서 진해시청쪽으로 1.5킬로미터쯤 가면서 보니, 녹산공단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약간 언덕진 고개를 오르다가 왼쪽에 있는 안청초등학교 입구로 들어서서 1킬로미터쯤 가다가 우회전을 하니, 왼쪽에 큰 호수를 연상케 하는 安骨浦가 보였다. 안골포의 오른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곳이 진해시 청안동인데, 청천과 안골을 합쳐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 뒷산에 높이 2미터, 길이 12미터, 폭 8미터쯤 되는 무덤이 있는데, 이를 도미 무덤이라고 한다. 포구가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에는 중앙에 ‘百濟政丞都彌之碑’라 써 있고, 왼쪽에 좀 작은 글씨로 ‘配貞烈夫人’이라고 쓰여 있었다.²¹⁾

청안동 남쪽에 있는 가덕도에 ‘天城’이란 마을이 있는데, 『삼국사기』에서 도미 부부가 만났다는 泉城島와 음이 같다. ‘천성’이란 마을 이름은 가덕도에 왜구가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천성’이 있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²²⁾ 이 마을 이름이 도미설화의 배경이 된 삼국 시대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청안동 사람들은 뒷산에 있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그 무덤이 신령스런 무덤이라고 전해져 왔다.²³⁾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 무덤이 도정승의 무덤이라고 전해 왔는데, 이를 근거로 1930년대에 성주 도씨가 도미의 무덤이라고 하여 비석을 세우고,²⁴⁾ 매해 제를 올린다고 한다.²⁵⁾

이로 보아 이 지역에 전해 오는 도미설화는 문헌에 전해 오던 이야기가 청안동에 있는 무덤, 천성도라는 지명과 관련되면서 이 지역에서 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전설은 도미 부부가 천성도에 도착했다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시하면서도,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갔다는 대목은 전해 오지 않는다. 이것은 이 곳이 고구려와는 먼 남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 하겠다.

도미설화와 관련된 지명에 관하여 최내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미 아내가 왕을 피해 배를 탄 곳이 어디였을까?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倉隅里 앞 나루터는 건너 마을 팔당으로 가는 팔당나루인데, 이것을 도미나루터라고도 한다. 東國輿地勝覽(권7 廣州牧)에도 도미나루 곧 渡迷津이라고 하였다. 건너편을 ‘渡迷遷’이라 했는데 遷은 新羅方言으로 강가벼랑의 돌길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도미나루와 도미천은 신라시대까지 소급할 수

21) 이 비의 뒷면에는 ‘史官有詩曰’로 시작하여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는 시 두 수가 새겨져 있다. 그 옆면에 ‘丙子 三月 日’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는 1936년에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22) 정상박, 1988. 「앞 글」 (주 1) 25.

23) 「위 글」 26.

24) 「위 글」 27.

25) 앞에 적은 자료 G의 구연자 박석수씨의 말에 의하면, 박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자기가 몇 년 전까지 이 무덤을 관리하고, 외지에 사는 도씨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해 주었다고 한다. 지금은 도씨들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있다는 말이다. 金基鉉교수(順天鄉大)의 提報에 따르면 두 군데에 ‘두무개’가 있다고 한다. 한남동 강건너에 두무개(日人이 漢字로 表記할 때 頭毛浦라고 썼음)가 있고, 광나루 건너 바우절이(岩寺洞)에도 두무개가 있다고 한다. 두무는 도미의 變音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도미나루까지 한강에는 3곳이나 도미에 관련된 地名이 이천년간 傳承해온 셈이다.²⁶⁾

위에 적은 글에서 ‘渡迷津’을 도미설화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는 데에는 별 의의가 없다. 그러나, ‘두무개’의 ‘두무’를 ‘도미’의 變音으로 보는 데에는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미설화의 구전 자료가 채록되었다는 보고도 아직까지 없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도미설화의 배경이 된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미설화가 전승해 오는 지역은 충남 보령과 경남 진해 두 곳이다. 그런데, 충남 보령 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고, 도미설화와 관련되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다. 그리고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가까워 설화의 내용과 일치되는 점이 많다. 그래서 보령 지역이 진해시 청안동보다는 도미설화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口傳 資料의 內容 比較

구전되는 도미설화는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전승 과정에서 생긴 變異라 하겠다. 각 자료의 요지를 『삼국사기』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도미가 왕과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의 정절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왕이 가짜 왕을 보내어 도미 아내를 범하려 하자 도미 아내가 몸종을 들여보내어 정절을 지켰다는 내용의 (나), (다), (라) 단락은 보령 자료에는 없고, 『삼국사기』와 진해시 청안동 자료에만 있다. 이것은 청안동 자료가 문헌 자료와 관련이 깊음을 말해 준다.

둘째, 도미의 신분은 『삼국사기』에는 평민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 자료(A~E)에는 목수로 되어 있다. 보령 자료는 도미의 신분을 목수로 구체화함에 따라 도미가 왕과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였다는 『삼국사기』의 대목은 없어졌다. 그리고 왕이 도미에게 짧은 기간 내에 집을 짓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집을 짓지 못한 벌로 도미를 장님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해 자료(F, G)에는 도미의 신분이 정승 또는 왕과 가까이 지내는 부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진해시 청안동에 있는 무덤이 도정승의 무덤이라고 전해 왔다는 점과 도미가 왕과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왕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꾼 것이라 하겠다.

26) 최내옥, 1982.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서울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144.

단락의 요지	삼국사기	A	B	C	D	E	F	G
가. 도미가 미인 아내와 살았다. (도미의 신분)	0 (평민)	0 (목수)	0 (목수)	0 (목수)	0 (목수)	0 (목수)	0 (부자)	0 (정승)
나. 도미가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내의 정절을 믿는다고 하였다.	0						0	
다. 가짜 왕을 보내어 도미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였다.	0						0	0
라. 도미 아내가 몸종을 들여보냈다.	0						0	0
마. 가진 자가 도미 아내를 탐하여 도미를 장남을 만들고 빈배에 태워 보냈다. (가진 자의 신분)	0 (개루왕)	0 (원남)	0 (관리)	0 (왕)	0 (관리)	0 (왕)	0 (왕)	0 (왕)
바. 가진 자가 도미 아내를 범하려 하였다.	0	0	0	0	0	0	0	0
사. 도미 아내가 도망하여 배를 타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도착한 곳)	0 (천성도)	0 (서해)	0 (서해)	0 (원산도)	0 (원산도)	0 (원산도)	0 (청안동)	0 (천성도)
아. 남편을 만나 함께 살았다. (함께 산 곳)	0 (고구려)	0 (어느 섬)	0 (어느 섬)	0 (고구려)	0 (원산도)	0 (고구려)	0 (청안동)	0 (천성도)

셋째, 도미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의 신분이 『삼국사기』에는 개루왕으로 나타나고, C·E·F·G에서는 왕명을 말하지 않고 그저 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A·B·D에서는 원남, 목장 관리대장,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B·D자료가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와 관계없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도미 아내의 지혜와 정절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도미설화가 일반적인 官奪民女型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바다에서 표류하던 도미 부부가 만난 곳이 보령 자료(A~E)에서는 원산도 또는 서해의 어느 섬으로 나타나는데, 『삼국사기』와 진해 자료(F, G)에서는 천성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진해 자료가 『삼국사기』의 기록 및 가덕도에 있는 천성 마을과 관련되어 생긴 변이라 하겠다.

다섯째, 도미 부부가 여생을 마친 곳이 『삼국사기』와 C·E에는 고구려로 되어 있다. 그런데, A·B·D에서는 원산도 또는 서해의 어느 섬, F·G에서는 청안동 또는 천성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승 지역의 지형이나 지명, 증거물과 관련되어 생긴 변이라 하겠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상사봉에 있는 도미 부인 설화비에 적힌 내용은 그 지역에서 전해 오는 구전 자료 A~E 중 C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정리한 것 같다. 그래서 도미의 신분이 목수로 되어 있고, 도미가 왕과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의 정절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왕이 가짜 왕을 보내어 도미 아내를 범하려 하자 도미 아내가 몸종을 보내어 정절을 지켰다는 내용의 (나), (다), (라) 단락은 없다. 그런데 C와는 달리 도미의 아내를 탐한 사람을 ‘개루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 기록을 받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IV. 맺음말

도미설화는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東國通鑑』, 『東史綱目』, 『海東雜錄』, 『三綱行實圖』 등의 문헌과 『星州 都氏 族譜』에 실려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헌에 기록된 도미설화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수용하여 기록하였으므로, 기본적인 줄거리는 같다. 그러나 각 문헌의 편찬자는 그 문헌의 편찬 목적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축약 또는 부연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필자는 구전되는 도미설화를 충남 보령에서 5편, 경남 진해에서 2편을 채록하였다.

충남 보령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던 서해안 지역으로 섬이 많아 백제인인 도미 부부가 개루왕의 핍박을 받다가 배를 타고 어느 섬에 닿았다가 고구려로 갔다는 『삼국사기』의 내용과 역사, 지형 면에서 합치된다. 이 지역에는 도미가 살았다는 ‘도미항’, 도미의 아내가 출생하였다는 ‘美人島’, 도미의 아내가 남편이 탄 배가 흘러간 곳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想思峰’ 등의 지명이 있고, 백제 시대에 전쟁에 쓸 말을 길렀다는 ‘전마들[戰馬坪]’과 그에 관련된 ‘말무덤’·‘파리재’·‘마차미’·‘대섰말’ 등의 지명이 있다. 그리고 도미항을 떠난 배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원산도에 닿는 것을 실험하여 이 지역에 전해 오는 도미 이야기가 사실과 관계가 깊음을 확인해 본 사람이 있다. 경남 진해 지역에 전해 오는 도미 설화는 문헌에 전해 오던 이야기가 도정승 무덤이라고 전해 오는 청안동의 무덤, ‘천성도’라는 지명과 관련되어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전설은 『삼국사기』의 기록 중 도미 부부가 천성도에 도착했다고 한 대목은 중시하면서도,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갔다는 대목을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두 지역에 전해 오는 자료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 도미가 왕과 여자의 정절에 관해 이야기하고, 왕이 가짜왕을 보내어 도미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는 대목이 보령 자료에는 없고, 『삼국사기』와 진해 자료에만 나타났다. 이것은 진해 자료가 문헌 자료와 관련이 깊음을 말해 준다. 도미의 신분이 보령 자료에는 목수로 되어 있는데, 진해 자료에는 정승 또는 왕과

가까이하는 부자로 상승되어 있다. 이것은 도미가 왕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설정하고, 진해시 청안동에 있는 무덤이 도정승의 무덤이라고 전해 오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 변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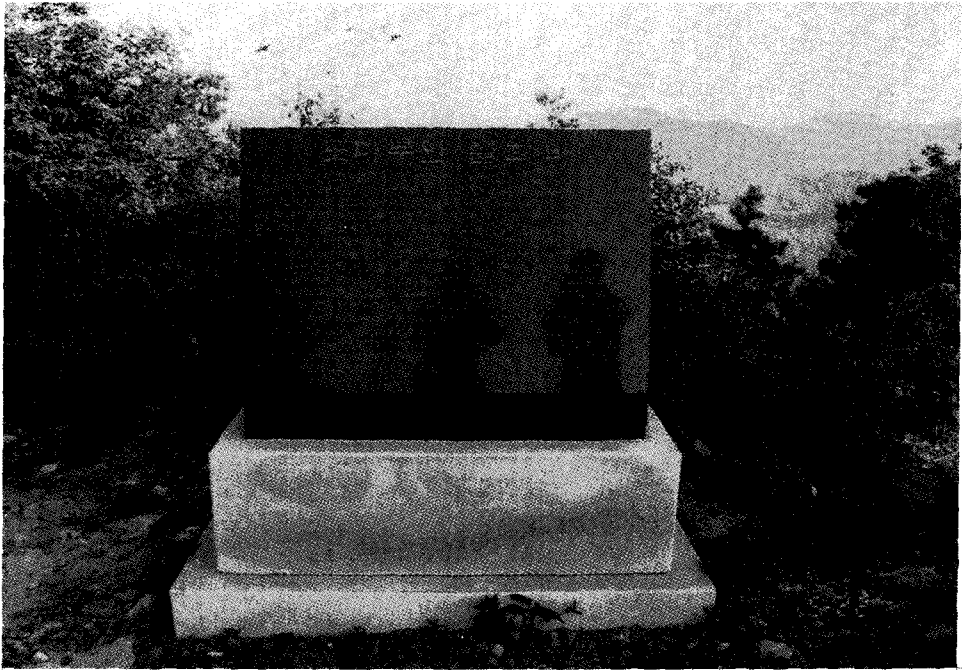
헤어졌던 도미 부부가 다시 만난 곳과 여생을 마친 곳이 보령 자료에서는 원산도와 고구려로, 진해 자료에서는 천성도와 청안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지역의 지형이나 증거물과 관련된 변이라 하겠다. 보령 자료 중에는 도미설화가 일반적인 官奪民女型說話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 흥미롭다.

도미설화는 충남 보령과 경남 진해에서 지금도 구전되고 있다. 그런데 두 지역에서 전해 오는 설화가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가 민간에 퍼져 전해 오는 것인지, 문헌 자료와 관계없이 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비롯한 구전 자료의 내용과 두 지역의 역사, 지형적 특성, 지명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충남 보령 지역이 도미설화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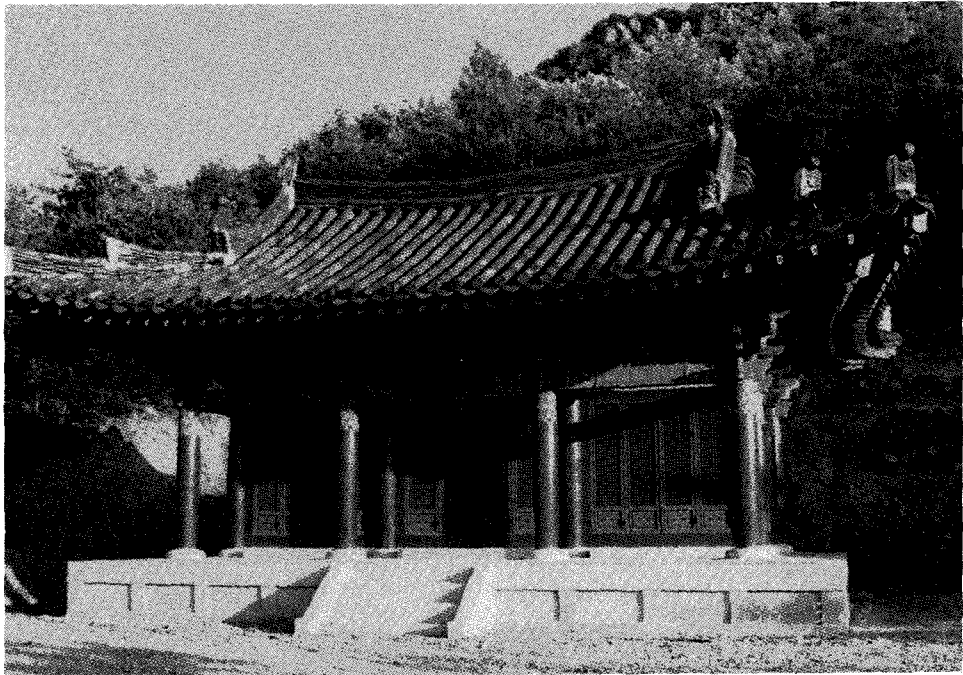
보령과 진해 이외의 지역에서 도미설화가 구전되고 있는지, 도미설화와 관련된 지명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과제로 남겨둔다.



〈사진 1〉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와 소성리 경계의 상사봉에 있는 도미부인 정절각



〈사진 2〉 상사봉 정절각 옆에 있는 도미부인 설화비



〈사진 3〉 상사봉 아래에 있는 도미부인 사당



〈사진 4〉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 있는 도미의 무덤과 묘비